

# “이런 기능 있어?”… 삼성 vs 애플, AI스마트폰 경쟁 본격화

삼성, 내달 AI 탑재 폴더블폰 공개  
美 SNS에 아이폰 없는 기능 강조  
오늘 새벽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통화녹음·요약서비스 공개 주목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자체 AI 플랫폼 공개를 앞두고 있어 양자간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삼성전자와 구글 등과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이다. 다만 애플의 AI 스마트폰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라는 점과 시리의 업그레이드 등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각 11일 새벽 2시) 연례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할 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AI를 탑재하고 한층 평평해진 갤럭시 신형 폴더블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1월 실시간 통번역, AI 기반 검색 기능 등이 포함된 ‘갤럭시 AI’와 이를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의 앞선 기술력을 공개함과 동시에 리딩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의 첫 AI 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가 애플이 공개할 AI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모바일US)은 지난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갤럭시S24시리즈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며 아이폰에 없는 기능을 강조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했다.

삼성전자가 게시한 한 영상에는 ‘아이폰’이라는 문구가 서서히 벌어지면서 ‘dare you to zoom into the dark without a galaxy(갤럭시 없이 어둠



지난해 오후 서울 종로구 KT 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진열된 아이폰 15 시리즈. /뉴시스

을 확대하려 하다니)’라는 문구가 채워진다. 이후 갤럭시S24를 든 배우가 어두운 환경에서 나이트그래피를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너의 아이폰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견제에 나선 것은 애플의 자체 AI 스마트폰 공개 영향이 크다. 애플은 이날 WWDC24를 개최하고 iOS 18, 아이패드OS 18 등 새로운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대거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로 알려진 AI 기능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에 AI 챗봇을 결합해 한층 더 진화시키거나, 아이폰에서도 AI 지능형 검색, AI 사진 편집 등도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WWDC24에서 AI 기능이 담긴 iOS 18이 발표된 이후 애플의 첫 AI 폰으로 하반기 아이폰16 시리즈가 출시된다.

다만 애플이 AI 기능을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과 같은 기능보다 출시된지 12년이 넘는 음성 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AI 기능을 아이폰이나 맥에서 이용하려면 M1 칩 이상이 탑재된 기기가 필요하고,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 15 프로나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16 시리즈로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1000달러(약 130만원)를 훌쩍 넘는 휴대폰 가격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애플의 통화녹음 서비스 여부



삼성전자 미국법인(삼성모바일USA)이 10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애플이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사과로 해보세요(Do more with an apple than Apple's ever done)’ 광고 영상. /삼성전자 미국법인 인스타그램

가 관건이다. 최근 애플이 iOS 18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통화 녹음 및 요약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만약 통화 녹음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스마트폰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애플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드에 따르면 메모 앱을 통해 오디오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부터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요약 기능 등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 역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별 음성 메모·녹음 열기부터 오디오 콘텐츠별 특정 녹음 삭제, 음성 메모 녹음 검색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LGU+, 온디바이스 AI에 ‘익시젠’ 더한다

NPU 개발사 딥엑스와 맞손  
모빌리티·로봇·가전 등에 활용

보를 처리하고 추론하는데 특화된 프로세서다.

LG유플러스의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익시젠(ixi-GEN)이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해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국내 반도체 팹리스(설계) 회사 딥엑스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미래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폭넓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딥엑스는 로봇·가전·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NPU(신경망처리장치)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NPU는 셀 수 없이 많은 신경세포와 시냅스로 연결된 인간의 뇌처럼 정

NPU는 대량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추론하기 때문에 AI 연산처리 작업에 최적화됐다. 최근 AI 기술에 많이 사용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반도체 대비 추론영역에 있어 효율은 높으면서 낮은 전력을 사용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딥엑스가 개발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에 익시젠을 접목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솔루션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비롯해 스마트 모빌리티, 로봇, 가전,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남영 기자

## KG 모빌리티 “재연시험, 사실과 다르다”

강릉 급발진 사고 재연시험 반박

강릉에서 A 씨가 손자를 태우고 SUV를 주행하던 중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손자가 숨진 사건이다. 원고인 A 씨 측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인 KGM과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인 티볼리 제조사 KG 모빌리티(KGM)가 유가족(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KGM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KGM은 유가족 측의 감정 신청에 의해 지난 4월 19일 실시된 재연시험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연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된 것으로 ▲가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원고 측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AEB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1차로 모닝 차량을 추돌할 사고 당시 차량이 정지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에 KGM은 “원고들은 사고 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차량 결함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소송에서 입증된 부분”이라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생성형 AI로 의약품 이상사례 신속 공유”

SK C&C 일성아이에스와 협력  
유관기관 제출양식 기반 보고서 작성

국내 병원에서 의약품 이상 사례가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가능해진다.

SK C&C는 10일 국내 제약회사인 일성아이에스(주)와 ‘제약 분야 AI DX(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성아이에스는 1954년 설립돼 국내 최초로 항생제를 도입한 제약회사다. 이번 AIDX 파트너십은 일성아이에스 제약 분야 전반에 생성형 AI·클라우드·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 C&C 구성원들이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솔루어(Solur)’를 활용한 ‘생성형 AI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 데모 버전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SK C&C

양사는 먼저 SK C&C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솔루어(Solur)’를 활용해 보건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 이상 사례를 보고하기 위

한 ‘생성형 AI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구현하기로 했다.

국내 약물 감시체계상 제약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하루에 적게는 2~3개, 많게는 수십 개 이상에 달하는 제약 의약품 이상사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솔루어는 규제 당국 및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양식에 맞춰,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방식으로 수집된 각종 이상 사례를 빠르게 정리하고 작성해 보고한다.

양사는 향후 다양한 약물 감시 업무에도 솔루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SKT, CDMA 상용화로 ‘ICT 명예의 전당’

ICT 노벨상 IEEE 마일스톤 선정

1996년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CDMA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에 SKT는 CDMA 사례로 국내 기업 최초로 수상 기업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SKT는 이날 IEEE 마일스톤 선정 기업에 부여되는 기념 현판 제막 행사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개최했다.

SK텔레콤이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상용화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ICT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CDMA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통신 기술을 전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기술이다.

SK텔레콤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IEEE)가 선정하는 ‘IEEE 마일스톤’에 등재됐다고 10일 밝혔다. SKT는 지난

SKT는 CDMA 상용화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했던 당시의 열정을 밑바탕 삼아 글로벌 인공지능(AI) 컴퍼니로 전화한다는 전략이다. /구남영 기자